

텍스트의 고난과 현실적 고통의 만남을 통한 비판적 프로네시스의 생성: 리콰르의 형상화 개념을 통한 옴의 ‘내러티브’와 세월호 ‘스토리’의 만남*

변경원 (이화여자대학교)

I. 서론

II. 형상화 단계

1. ‘고난의 내러티브’로서의 옴기
2. 옴의 친구들의 고난 이해와 전능한 하나님
3. 하나님에 저항하며 ‘묻는 자’ 옴

III. 전형상화 단계

1. 신정론과 옴의 하나님 이해
2. 질레의 고난 이해

IV. 재형상화 단계

1. 세월호 스토리, 그 고통의 삶의 자리
2. 비판적 프로네시스

V. 결론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6.35.07>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3465)

• ABSTRACT •

A Formation of Critical Phronesis through the Encounter between
Suffer of a Text and Real Suffering: An Encounter between a ‘Narrative’
of Job and ‘Stories’ of Sewol Ferry Accident through the Concept of
Paul Ricoeur’ Configuration

Byun, Kyung-won (Ewha Women’s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find ethical point by exploring the interpretation of Book of Job. People regard the Book of Job as a ‘Suffer narrative’. We intended to connect this narrative to the ‘stories’ of the accident of Sewol ferry. In this article, the concept of ‘narrative’ and ‘stories’, ‘suffer’ and ‘suffering’ is differentiated.

We used the theory of Paul Ricoeur’s configuration. In the theory of configuration, there are three areas: configuration, preconfiguration and reconfiguration. In the area of configuration, we examined the difference of thought about understanding suffer by Job and Job’s friends. Then, in the area of preconfiguration, we explained the theory of theodicy to understand the consideration of suffer by Job’s friends. Also, we considered the thinking of Dorothee Soelle’s understanding of suffer and suffering. She opposed the theory of theodicy. In the area of reconfiguration, we explained Ricoeur’s critical phronesis.

Key words: Paul Ricoeur, Dorothee Soelle, Configuration, Job, Critical Phronesis

I. 서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¹⁾이 발생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에 동참했다. 교회와 신학자들 역시 세월호 사건에 반응했다. 이 글은 그 반응들 중의 하나이다. 이 글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기독교와 기독교인은 어떤 윤리적 입장을 취해야 할까를 성찰해 보려는 노력이다. 그것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이 '고통당하는 자를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거나, 알파한 신학으로 정죄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물음에서 시작한다.

기독교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에 대해 고민하고 그 답을 구하려고 노력해 온 종교이다. 이 글은 고통의 문제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욕기'의 이야기를 '고난의 내러티브'로 상징하여, 지금 우리 곁에 놓인 세월호 사건의 '고통의 스토리'와 접목해 보려는 시도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내러티브'와 '스토리'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라는 용어를 약간 다른 맥락에서 뉘앙스의 차이를 두고 사용한다.

'고난의 내러티브'는 현실적 고통이 이미 텍스트에 고착된 '한 말'을 의미한다. 욕기 텍스트가 그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고난의 내러티브'는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고통의 스토리'는 아직 텍스트로 고정되지 못한 이야기들을 말한다. 여기서 고정되었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인쇄물로 출판되어 나온 것을 의미하지 않는

1)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해난사고로 승선원인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것을 지칭하는 용어는 사고, 참사 등 그 개념 규정에 따라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단순한 선박사고가 아니라 이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반응 현상을 통칭"하는 사회윤리적 입장에서 '세월호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최규창, "유가족의 사회학, 우리의 신학, 숨어있는 하나님", 김민웅 외, 『헤아려 본 세월』(서울: 포이에마, 2015), 125.

다. 세월호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인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고통의 스토리는 해석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뉘앙스의 차이를 두는 것은 이 글이 고통에 대한 논의를 폴 리콥르(Paul Ricoeur)의 형상화 개념을 통해 시도하기 때문이다.

리콥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 개념, 즉 플라톤이 말한 자연의 모방이 아닌 행동의 모방 개념을 채택한다. 리콥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 개념을 미메시스1(전형상화), 미메시스2(형상화), 미메시스3(재형상화)의 단계로 확장한다. 먼저 미메시스1의 단계는 내러티브를 읽는 독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인간 행동을 구성하는 방식을 이미 알고 있음을 뜻한다. 미메시스2는 이 행동방식에 근거하여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유사세계’로 만드는 것이다. ‘유사세계’란 소설, 신화 등과 같은 이야기의 세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 ‘마치 ~와 같은’의 왕국의 문이 열린다. 미메시스3은 이야기를 읽는 독자가 이야기의 세계를 통해 떠오르는 의미의 영향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행동방식의 변화를 초래할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미메시스 1의 상류와 미메시스3의 하류를 잇는 매개가 미메시스2라는 리콥르의 이론에 따라 미메시스2의 텍스트의 세계를 마주한 인간이 미메시스1에서 어떤 전이해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미메시스3에서 어떤 자아로 새로워 질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²⁾

이러한 리콥르의 형상화 개념에 기초하여 이 글은 (1)형상화 단계인 읍의 이야기를 ‘고난의 내러티브’로, (2)재형상화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세월호 사건의 담론을 ‘고통의 스토리’로 구분한다. 리콥르는 ‘한 말을 통

2) Karl Simms, *Paul Ricoeur*, 김창환, 『해석의 영혼 폴 리콥르』(서울: 엘피, 2003), 160-161.

해 '할 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이다. 세월호 사건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할 말'이 많다. 이 글은 그 '할 말'들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욕기 내러티브의 '한 말'을 통해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우선 욕기의 줄거리 구성을 통해 고난의 이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 먼저 욕의 친구들의 고난 이해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욕 자신의 고난 이해가 욕기 내러티브에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할 말'들이 단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할 말'들이 다양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기독교인들 역시 다양한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신학적 관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내러티브를 읽는 전이해의 영역이다. 이러한 전이해의 영역을 다루는 부분이 전형상화 단계이다. 독자가 어떤 전이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욕의 내러티브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전이해를 찾아가는 가는 것은 상상력의 영역에 속한다. 이 글에서는 이 전이해의 영역을 '신정론'과 도로테 쥘레의 '고난 이해'의 틀에서 서술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고통의 사태에 직면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어떤 윤리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에 있다. 이러한 논의는 재형상화 단계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재형상화는 텍스트의 세계를 실제 세계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형상화 단계에서 미결상태로 남겨두었던 지시 기능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이 글은 세월호 스토리를 보는 독자가 욕기의 내러티브를 들으며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 어떤 삶의 지향점을 설계해야 될 것인가를 제안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세월호 스토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고통당한 자가 어떤 정체성의 변화를 겪는지를 우선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당한 자를

보며 기독교와 기독교인은 어떤 윤리적 지향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리쾨르의 '비판적 프로네시스' 개념을 통해 서술하게 될 것이다.

II. 형상화 단계

형상화 단계, 즉 미메시스2는 줄거리 구성에 해당한다. 미메시스2는 이야기의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의 이해 가능한 전체'로 조직하는 작업이다. 조직하는 일은 단순히 사건들을 나열하여 사건의 연속체로 구성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직된 내러티브에 대한 '사유', 다시 말해 현실을 괄호치기하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라고 묻는 작업이다.³⁾ 이 글은 읍기를 읽는 입장⁴⁾ 중 '고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읍과 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가를 보이게 될 것이다.

1. '고난의 내러티브'로서의 읍기

구약성서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읍기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는 이야기이며 설교 자료이다. 오랫동안 읍기에 대한 접근 방식과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⁵⁾ 읍기가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산출해 내는 것은 성서 속의 다른 인물들 이야기보다 읍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실존적 문제와 더 많은 접점을 형성하기 때문일 것이다.

3) 위의 책, 162.

4) 우상혁은 지금까지 논의된 읍기의 주제를 4개 정도 나눌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무고한 자 혹은 인내자의 고난, 둘째는 보상교리, 셋째는 하나님의 성격과 인간과의 관계, 넷째는 반항자로서의 읍이다. 우상혁, "이야기로서 읍기 읽기", 한국구약학회, 『구약논단』, 제 17권 1호(통권 39집)(2011), 84.

5) 읍기에 관한 연구는 L. Dornisch, "The book of job and Ricoeur's hermeneutics," *Semeia* 19 (1981), 3-21을 참고하라.

욕기를 읽는 독자는 욕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읽어낸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통과 직면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또한 인간은 이웃의 고통을 지켜보며 고통당하는 자가 대면한 불의에 대한 공동의식을 형성하기도 한다. 욕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고통당하는 인간상의 표본이다. 그것은 “욕기는 고난을 당한 인간의 신앙 전기”⁶⁾이기 때문이다.

욕기는 인간에게 고난은 언제든 닥칠 수 있으며, 그 고난은 또한 느닷없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은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에게 닥쳐왔다. 욕의 고난이 그랬듯이, 고난 받는 욕과 그 욕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논쟁의 중심에는 고난과 하나님의 관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욕은 “고통 한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을 찾았다. 자신의 고통을 설명해 줄 분을 찾았다.”⁷⁾ 왜 자신에게 그런 고난이 오는지 알아야 했다. 그래야만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아니, 해결하지 못한다 해도 이유나 알아야 덜 억울할 것이었다. 고통 받은 자들이 느끼는 억울함은 고통에 대한 이유가 밝혀져야 그나마 해결될 수 있다.

이 글은 욕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을 이해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음을 욕기 본문, 즉 형상화 단계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욕의 친구들의 고난 이해와 전능한 하나님

‘욕과 친구들의 대화’는 욕기 3장 1절부터 31장 40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욕과 친구들의 대화는 욕기의 구성상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6) 양명수, 『욕이 말하다』(서울: 분도출판사, 2003), 13.

7) 같은 책.

있다. 대화의 내용은 친구 개인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친구들은 대개 비슷한 생각과 전제 위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며 욱과 논쟁하고 있다.

욱과 친구들의 견해 차이는 욱이 당하는 고난이 합당한 죄에서 온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욱은 자신이 고난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친구들은 욱이 생각이 나지 않을 뿐이지 분명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합당하다는 것이다.⁸⁾ 친구들의 이런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의인의 고난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을 발생시킨다. 그 이유는 의인의 고난은 죄를 지은 자가 고난당해야 하는 인과론적 논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인과론적 논리는 질서를 형성시킨다. 그러나 인과론이 부재하는 곳에서는 혼란이 올 수 있다. 우리는 착한 일에 정당한 보상을 악한 일에 정당한 벌을 받는 논리가 지배하는 곳에 살아야 안정과 질서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정의가 살아 있는 곳은 안전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정의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과론적 정의관이 현세가 아니면, 내세에서라도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하는 사회의 구성원은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욱이 주장하듯 의인이 고난당하는 사회라면 어떻게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친구들은 그것이 불안했던 것이리라. 보통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분명 죄가 있으니 고난이 와야 말이 되는 것이다. 의인이 고난 받는 세상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리라.

친구들이 욱의 고난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근거는 '전능

8) 엘리야스는 욱의 고난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욱 4:7-8). 소발은 욱의 고난은 욱의 잘못이고, 욱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회개해야 된다고 조언한다(욱 11:6, 11, 13, 14) 빌닷 역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뿌리치는 분이므로 욱이 고난을 받는 것은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본다(욱 8: 20-22)

한 하나님' 때문이다. 전능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모든 일을 계획하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일은 옳다. 그러므로 옴의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 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⁹⁾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의 기본 구조는 '전능한 하나님-무기력한 인간의 도식'에 따른다. 이런 도식 속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수용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난을 기꺼이 수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난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은 불경하게 여겨진다. 친구들은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친구들의 논리는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기 어렵다. 오히려 고통당한 자를 더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난에 대해 논하는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논리를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한국교회는 새로운 흐름을 수용하는 것에 배타적이다. 기존의 화석화된 논리 구조 위에서 안전하게 머물러는 의지가 강하다. 많은 설교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교 담론을 형성하지만 그 기본 구조와 도식의 변화는 없다. 그 담론 구조의 바탕이 '전능한 하나님-무능력한 인간'의 도식이다. 이 구조 위에서 고통을 이해할 경우 고통받는 자와 공감할 수 있는 담론의 생성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신학이란 신에 관한 말이다. '전능한 하나님' 역시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표상이다. 하나님을 하나의 표상 안에 가두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 안에 가두는 것이다. 친구들의 생각은 "죄와 벌의 짧은 인과 속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 속에 가두는 것이다." 옴은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의 주장에 저항한다.¹⁰⁾

9) 위의 책, 14.

10) 위의 책, 16.

3. 하나님에 저항하며 ‘묻는 자’ 욥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난당한 인간은 하나님에게 저항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닌 전능한 분이다. 그러나 고통당한 인간은 저항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 물어야 한다. 물음이 저항이다. 욥의 친구들은 전능한 하나님을 침묵하는 하나님으로 상정한다. 친구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죄가 무엇이었나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할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대답을 주실 하나님으로 여긴다. 저항이다. 그것이 저항인 것은 그 물음 속에는 무조건적 ‘순종’에 대한 거부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욥은 친구들의 언어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리고 욥은 묻는다. 그때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묻는 것’이다. 고통당한 사람은 묻는다.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왔는지. 또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욥기에 나타난 ‘저항’이란 고난에 대한 무언가 설명을 듣기 위해 묻는 것이다. 설명은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 고난에 무관한 사람은 고난에 대해 물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난에 처한 사람은 고난에 대해 묻는다.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오는 고통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얻어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욥은 죄 있는 자에게 고난이 온다는 친구들의 주장에 하나님은 죄있는 자에게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진화를 비난한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운 나를 배반하

고 자기를 냉대하는 분이라고 토로한다.¹¹⁾ 욕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긍정하며 이웃의 고난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고난 당한자의 고난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하며, 고난을 정당화하는 친구들의 논리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는 그 저항을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다. 친구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욕은 "이와 같이 적대적인 하나님에게 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¹²⁾ 이 저항이 욕이 고난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III. 전형상화 단계

전형상화, 미메시스¹⁾은 욕기를 이해하기 위한 약간의 예비적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예비적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리코르는 미메시스란 플라톤이 말하는 자연의 모방이라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동의 모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욕기의 이해 가능성은 "행동의 영역과 물리적 운동이 영역을 구조적으로 구별하는 개념망을 의미있게 사용할 수"¹³⁾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 부분에서는 그 개념망으로 신정론과 철레의 고난 이해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1. 신정론과 욕의 하나님 이해

욕기는 시대와 해석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러티브이다.

11) Herbert Haag, *Jobs Fragen an Gott*, 김윤주, 『하나님에 대한 욕의 물음』(서울: 분도출판사, 1983), 38.

12) 위의 책, 40.

13) Paul Ricoeur, *Temps et récit I*, 김한식의, 『시간과 이야기1』(서울: 문학과지성사, 2008), 129.

예를 들면, 에스겔은 욥을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유대인의 이상적인 표상인 ‘의로운 사람’으로 해석한다. 한편 신약 야고보서는 욥을 ‘인내하는 사람’으로 표현함으로써 극심한 박해에 직면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려는 의도로 읽힌다.¹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는 욥기는 많은 경우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서 신정론적 입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기도 한다.¹⁵⁾ 신정론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학설로 나뉠 수 있다.¹⁶⁾ 그러나 여러 가지 신정론이 품고 있는 공통의 영역은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적 논리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며 욥과 논쟁하는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러한 신정론적 입장을 고수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기독교가 이러한 인과(응보)적 입장을 고수하는 곳에서는 상처받는 영혼이 있을 수 있다. 천재지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너의 고통이 너의 잘못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¹⁷⁾ 이때 고통당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과론과는 다르게 이해하려 한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탄식한다. 이 탄식은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욥의 신앙적 간구다. 그러나 이 탄식은 단순히 신앙적 간구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이 탄식은 욥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은 아마도 세 친구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누리던 욥은 그것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겼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 후 욥은 하나님을 비난한다. 또한 세 친구들

14) 김재구, “욥1-3장: 욥기 전체를 푸는 열쇠,” 『구약논단』 13-2(2007), 92. 재인용.

15) 안근조, “욥31장에 나타난 구약성서의 윤리,” 『구약논단』 16-2(2010), 72.

16) 손호현, “다원성과 모호성 - 구약성서의 신정론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2(2012), 149 참조.

17) 한국 교회 설교에서 쓰나미와 같은 천재지변을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하는 담론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 인과(응보)적 세계관에도 저항한다. 고난을 통해 욕은 신학도 세계관도 변화한 것일 수 있다.¹⁸⁾

신정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고난의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한 대형 교회 목사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¹⁹⁾

수많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를 하나님의 뜻이니 수용해야 한다는 선포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고통당한 인간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저지른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윤리의 생성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구원의 교리에 매몰되어 윤리적 생성지점을 차단한다면, 기독교인들이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근원적 명령인 사랑의 실천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신정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고난에 대한 쥘레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고난에 대한 다른 이해 방식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2. 쥘레의 고난 이해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문제라고 여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쥘레는

18) 안근조, 『하나님의 지혜 초청과 욕의 깨달음』(서울:킹덤북스, 2012), 41.

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67

“고난에 대한 전통적인 물음, 곧 개인적이고 내적인 고난에 대한 물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을 때에만 고난에 대한 현대적인 물음, 즉 사회비판적이고 외적인 현실과 관계된 고난에 대한 물음이 의미 있게 제기될 수 있다”²⁰⁾고 말한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은 개인적 고통인가? 물론 개인이 당한 고통이다. 가족의 죽음은 매우 사적인 고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집단적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정도의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면, 그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이것이 세월호 사건을 문제로 여기며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쥘레는 신정론적 입장에 비판적이다.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신정론적 관점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모두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다 알 수 없는 미미한 피조물일 뿐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곧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거나,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쥘레는 고난에 대해 인내를 요구하며 고난과 직접 대면하는 것을 지양하는 태도에 대해 “인내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현상태를 유리하게 온존시키는데 참여하는 사람”²¹⁾이라고 비판한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신정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고통 받는 삶을 하나님의 뜻이니 인내하고 참고 감사의 마음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선포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통당하는 자는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은 그 이유를

20) Dorothee Soelle, *Leiden*, 최미영외, 『고난』(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11.

21) 같은 책.

알아야 하며, 하나님에게 그 답을 들어야 한다. 욕의 고난 내러티브는 이렇게 답을 듣는 과정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고난받은 욕은 자신이 의인임을 강조하며 자신에게 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과 끊임없이 논쟁한다. 이 논쟁이 소통이다. 한국 사회에는 이 논쟁이 사라지고 없다. 논쟁이 없다는 것이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닥친 고통에 대해 그 의미파악을 달리 하는 사람들 간의 논쟁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욕이 그랬듯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하다. 하나님은 직접 답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욕은 답을 얻는다. 자신이 의인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이라는 길고 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강요된 죄책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긴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직접 고통당한 자에게도, 그 고통을 바라보며 함께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도.

한국 교회의 고난에 대한 신정론적 입장 중 다른 하나는 고난을 교육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고난이 인간을 성숙시킬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고난이 왔을 때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고난을 기꺼이 수용하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니 소란하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홀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개해야 될 순간에 고난이 온다는 생각이다.

“여러분 ... 침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입을 닫아야 합니다. ... 오늘 땅대가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침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해요. 이 일에 대해 이제 침묵하세요. ... 하나님 저의 죄 때문입니다. ...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영적 각성과 회개가 불붙듯 일어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²²⁾

22)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

쉴레는 이와 같이 ‘자아 완성’을 기대하며 고난을 정당화 하는 것을 ‘매저키즘적 고난 이해’라고 말한다. 쉴레는 이때 고난은 인간의 자존심을 손상하고, 인간의 무기력을 입증하며, 인간이 얼마나 신에게 종속되어 있는가를 보여, 인간을 왜소하게 만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신은 위대해 지며 인간이 결국 신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보이게 된다고 말한다.²³⁾

이러한 설교를 듣는 고통당한 사람들은 설교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될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극심한 고통은 인간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고난을 시험으로 주실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욥의 내러티브에 드러난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는 결국 욥에게는 알려지지 않는다. 인간은 고난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알 길이 없다. 다만 해석할 뿐이다. 욥기의 저자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사탄에게 왔을 것이라는 자신의 해석을 피력한 것이리라. 고난 받은 자 욥을 저술한 저자는 하나님이 온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욥기의 저자는 아마도 사탄이 개입하였을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생성했을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내러티브를 해석하여 새로운 자아이해를 형성하는 것이다.

쉴레는 고난을 자아완성을 위한 시험이라고 해석하는 설교자와 신학자들에게 해석을 하지 말고 차라리 침묵하라고 설파한다. 고통에 대해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청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적 매저키즘이라고 주장하는 쉴레의 주장은 세월호 사건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고통은 하나님이 보냈으며, 그것은 우리가 치뤄야 할 시험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고통 당한자가 침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신학이 침묵하는

23) Dorothee Soelle, 앞의 책, 25.

것이 고통당한 자와 오히려 함께하는 것이라는 역설을 허용한다.²⁴⁾

그렇다면 질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신정론적 해석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주체'로서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주체'로서의 힘을 키우는 길은 고통을 피해야 될 것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고통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질레는 "지금 당장 물어야 할 것은 불행의 제거 가능성 또는 그 불가피성에 관한 물음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누가 주체인가에 관한 물음이다"²⁵⁾라고 천명한다.

질레는 모든 형태의 고통을 거부하면 '비현실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고통을 거부하려 하면 내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리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생명의 유지와 상실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끔찍한 고통이다. 고통을 말하는 곳에서는 그와 함께 치유를 말한다. 그러나 그 치유가 고통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치유는 없다. 그 이유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또는 심리학적 치료를 통해서도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고통에 대한 그 기억이 흐려질 뿐이다. 기억의 흐려짐이 흐려진 상태로 늘 있는 것도 아니다. 상처는 남으며,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때때로 고통을 당한 그 순간보다 더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고통당한 순간 이후 그 고통을 시험으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 고통이 더 가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통을 당한 자는 늘 운다. 피울음을 운다. 그러나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희미해 질 뿐.²⁶⁾

질레는 "이런 주체의 힘은 너무 견고하고, 삶 전체를 인정하는 태도 역시 너무 강해서 고난을 피하거나 우회해 보려는 낭비적인 생각을 하지

24) 같은 책.

25) 위의 책, 9.

26) 위의 책, 94-96.

않게 된다. 신정론적 질문은 현실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 의해 극복되고 있다”²⁷⁾고 말한다. 신정론적 해석을 기독교의 매저키즘이라는 표현으로 일갈하는 쥘레의 고통에 대한 신정론적 비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해결책으로 고난의 승인을 말하는 부분은 무언가 부족하게 여겨진다. 고난을 승인하면 주체로 설 수 있다는 주장도 어딘가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을 보는 듯하다. 이 글은 고난에 대한 신정론적 해석에는 반대하며 그 해결책으로 ‘주체’를 세워야 한다는 쥘레의 원칙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주체가 어떤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고해 보아야 한다. 이 글은 리콴드의 생각을 따라 그 주체가 ‘고난의 내러티브’를 매개로 형성되는 매개적 주체임을 말하고 싶다.

IV. 재형상화 단계

미메시스³⁾의 단계는 현재의 지평, 즉 스토리의 지평과 텍스트의 지평, 즉 내러티브의 지평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은 텍스트 앞에서 텍스트의 세계를 이해하며 생성되는 자기이해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그리고 새로운 자기이해는 윤리적 자아의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1. 세월호 스토리, 그 고통의 삶의 자리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다. 세월호는 현재 인양의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들을 수장하는 고통을 겪은 부모들은 인양절차를 참관할 자격조차 상실한 채 인양하는 현장 주변을 맴돌며 인양작업을 그저 망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²⁸⁾ 고통의 현장에서 온전

27) 위의 책, 97.

28)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07011, 2016년 4월 4일 JTBC 뉴스.

히 사건의 고통을 주체가 아닌 비주체의 입장으로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유족들의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완전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세월호 사건 유족의 고통은 얼마나 큰지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의 고통조차 그 큰 고통 앞에서는 무력해 진다. 단원고 김건우 어머니의 예가 그렇다.

“공황장애가 왔어요. ... 그런 상태에서 이 일이 터진 후론 엘리베이터도 버스도 못타요. 아주 잠깐씩만 탈 수 있고, 그래서 광화문 가는 날도 거의 죽을 것 같은데 정말 건우 얼굴 하나 떠올리며 갈 수 있었어요. ... 그런데 그래도 가지더라구요.”²⁹⁾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 기독교가 신정론에 기대는 것은 아마도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기독교의 기본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 누구도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이유로 기독교는 사회정의 실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입장과 교회 안에 머무르며 궁극적 구원의 길에 매진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것을 앞에서 잠깐 언급한 ‘짧은 인과 관계’와 ‘길고 긴 인과 관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길고 긴 인과 관계 속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죄짓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짧은 인과 관계 속에 있는 무죄한 자의 죽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세월호 사건으로 수장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 아직도 지옥과도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는 유족들, 그들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 없는 죽음이었다’라고 선포해야 한다. 그래야만

29)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서울:창비, 2015), 32.

우리가 그들의 고통이 무언가 죄를 지어 발생한 것이라는 어이없는 논리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결국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의란, 억울함을 없애는 것이다. 지금 억울함 속에서 탄식하는 자의 소리를 먼 미래,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찾아들게 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가 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신정론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사랑 담론의 지배를 받는다. 이러한 사랑담론으로 인해 불의한 일을 바로잡는 정의 실현에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의의 실현 없는 사랑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불가능한 요청인 무조건적 사랑은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신뢰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쉴레는 “고통에 인간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를 지양하는 일에 뛰어들 사람은 오직 고난받는 사람들 자신 뿐”³⁰⁾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건우 엄 마는 교황님 미사 메시지를 듣고 “정의를 위해 물러서지 말라”는 답을 얻었다”고 한다. 고통받는 자가 고통을 지양하는 일에 뛰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일까? 쉴레는 말한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우리를 갈라놓는 울타리 저쪽 편에 서 있을 것인가?”에 답해야 한다고. 이 글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하는 윤리적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토대를 리쾨르가 말하는 ‘비판적 프로네시스’에서 찾으려 한다.

2. 비판적 프로네시스

비판적 프로네시스는 리쾨르 윤리사상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핵

30) Dorothee Soelle, 앞의 책, 9.

심개념이다. 리코르는 그의 저서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 개념을 순수한 프로네시스로 수용하여 비판적 프로네시스 개념을 도입한다.³¹⁾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혜'란 행동에 관계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편적 상황보다는 개별적 상황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실천적 지혜의 특성은 구체적인 행동의 지점을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숙고를 잘하는 것이다.

“여기서 숙고는 프로네시스, 곧 실천적 지혜가 추구하는 길이며, 보다 정확히 말하면 프로네시스의 인간-즉 프로니모스³²⁾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기 위해 추구하는 길이다.”³²⁾

숙고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숙고를 잘한다는 것은 인류가 남긴 유산 속에 들어있는 지혜를 찾는 것이다. 리코르는 그러한 지혜를 철학적 이론이 아닌 고전 작품 속에서 찾으려 한다. 그는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9장에서 숙고의 과정을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를 통해 도덕적 판단의 실험을 한다.

그렇다면 비판적 프로네시스라는 것은 무엇일까? 리코르의 비판적 프로네시스의 개념은 비판적 해석학의 개념과 연동되어 있다.³³⁾ 리코르에게 비판적 해석학은 텍스트의 자율성을 통해 드러나는 텍스트 앞에서 이루어지는 존재이해이다. 즉 텍스트의 내러티브를 해석하며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비판적 관점이라는 것이다. 이

31) Paul Ricoeur, *Soi-même comme un autre*, 김웅권,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서울:동문선, 2006), 383.

32) 위의 책, 236.

33) 이양수, “리코르와 비판적 프로네시스,” 『철학탐구』 37(2015), 192.

글은 읍의 내러티브 속에 들어있는 신정론적 의미를 질레의 고난 이해를 통해 비판적으로 이해하려 했다. 이렇게 비판적 관점을 거친 텍스트는 텍스트 자체가 변화한다. 질레의 관점을 통과하며 비판적 과정을 거친 읍의 내러티브는 그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즉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고통에 저항하며 하나님과 상대하는 텍스트로 변화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리콤피르는 하이데거를 따라 텍스트 앞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은 현존재의 실존적 상황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비판적 과정을 거친 텍스트를 매개로 ‘자기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 리콤피르의 비판적 해석학의 핵심이다.

고통에 직면하여 읍기를 읽는 독자는 고통당하기 이전에 읍기를 읽던 독자와는 같지만 다른 독자이다. 고통당하는 자는 고통 이전의 나와 동일한 자아(*idem*)이면서 또한 변화된 자아(*ipse*)이기 때문이다.³⁴⁾ 이렇게 변화된 자아는 읍의 고난의 그 느닷없음과 처절함을 마주하며 고통당한 자는 자신이 처한 고통의 문제 앞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당위성에 처하게 된다. 인간이 자신에게 닥쳐온 고통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생명을 놓칠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³⁵⁾ 살아있음의 의미를 확실히 찾지 못한다면 살아있어도 산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이 글에서는 읍기를 비판적 해석학의 관점으로 독해하고 그 앞에서 새로운 자기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이해가 가능하다면 고통에 처한 사람

34) 리콤피르에게 *idem*은 동일성을 *ipse*는 자기 항구성을 뜻한다.

35) 실제로 세월호 사건 후 그 사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지금도 생명의 유지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생존자들과 유족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심지어 학생 20명을 구한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마저 자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만열, “세월호 참사”, 김민우 외, 『헤아려 본 세월』(서울: 포이에마, 2015), 26.

들을 단지 신정론적으로 이해하는 단순한 논리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기독교 윤리적 자아 생성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본다.

V. 결 론

세월호 사건 유족들은 아직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광화문 광장의 천막 안에 자리하고 있다. 곧 인양될 세월호가 원형 그대로 들어 올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아직 남아있는 실종자들이 그 시신이나마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참담한 고통 앞에서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말은 사실 무의미하다. 말은 허공에 맴돌 뿐이다. 위로의 말은 잠시의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고통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차라리 고통 당한자의 손목을 잡고 하룻밤을 세우는 것이 백 마디 말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세월호 사건 유족들께는 또 하나의 빛을 지는 것이 될 것이다. 당사자가 아닌 자의 말은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에 얽힌 수많은 담론에 또 하나의 빛을 엮는 것은, 신정론적 도그마에 기초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이다. 이 글은 우리가 신정론적 개념의 길에서 조금 벗어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윤리적 지향점을 세우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글은 욕기를 하나의 고난 내러티브로 상정하며 세월호 고통의 스토리와 접점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게 될 인간이 새로운 윤리적 자아로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칠레는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만이 고통에 마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에 마주하는 사람만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은 그러한 주체를 리콰르가 말한 매개적 주체로 제안한다. 리콰르는 텍스트 앞에서

생성되는 매개적 주체는 이전의 자아가 아닌 새로운 자아로 생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은 바로 그렇게 생성된 주체는 같은 텍스트를 새롭게 해석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주체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알팍한 신학으로 정죄하지는 않게 되리라고 본다. 그런 주체는 고통당하는 자의 편에 서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요구에도 동참할 조건을 갖춘 윤리적 주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것이 곧 기독교에서 요청되는 무한한 사랑의 주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실천해야 될 무한한 사랑의 윤리는 곧 정의로운 환경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 이 글은 정의로운 환경을 생성해 내는 것은 고난의 내러티브를 어떤 전이해의 바탕에서 어떻게 생성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은 정의의 토대 위에서 사랑을 결합할 수 있는 주체는 텍스트의 내러티브를 해석하며 생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감싸 안으라는 명령은 정의의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신정론적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며 인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자아는 고통당한 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 논문은 그래서 그동안 무관심했거나, 옳의 친구들처럼 알팍한 신학으로 고통당한 자들을 정죄했던 사람들이 고통 당한자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듣고 함께 행동하는 자아로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민웅외. 『헤아려 본 세월』. 서울: 포이에마, 2015.
- 김재구, “욕1-3장: 욕기 전체를 푸는 열쇠,” 『구약논단』 13-2(2007), 92-106.
- 손호현, “다원성과 모호성- 구약성서의 신정론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2 (2012), 147-166.
- 안근조, “욕31장에 나타난 구약성서의 윤리,” 『구약논단』 16-2(2010), 71-91.
- _____. 『하나님의 지혜의 초청과 욕의 깨달음』. 서울: 킹덤북스, 2012.
- 양명수. 『욕이 말하다』. 서울: 분도출판사, 2003.
- 우상혁, “이야기로서의 욕기 읽기,” 『구약논단』, 17-1(2011), 83-107.
- 이양수, “리코르와 비판적 프로네시스,” 『철학탐구』 37(2015), 191-235.
-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 서울: 창비, 2015.
- Haag, Herbert, 김윤주 역. 『하나님에 대한 욕의 물음』. 서울: 분도출판사, 1983.
- Ricoeur, Paul, 김한식 외역. 『시간과 이야기1』.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8.
- _____. 김웅권 역.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 서울: 동문선, 2006.
- Simms, Karl, 김창환 역. 『해석의 영혼 폴 리코르』. 서울: 엘피, 2003.
- Soelle, Dorothee, 최미영 역. 『고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 Dornisch, L. "The book of job and Ricoeur's hermeneutics". Semeia 19. 198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6753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07011, 2016년 4월 4일 JTBC 뉴스.

논문투고일: 2016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2016년 07월 08일

게재확정일: 2016년 08월 05일

 • 국 문 초 록 •

이 글은 구약성서 『욥기』의 이야기를 ‘고난의 내러티브’로 상정하여, 지금 우리 곁에 놓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고통의 스토리’와 접목해 보려는 시도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내러티브’와 ‘스토리’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라는 용어를 약간 다른 맥락에서 뉘앙스의 차이를 두고 사용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접목을 통해 고난 내러티브 속에 들어있는 ‘한 말’을 통해 고통의 스토리를 지닌 인간이 ‘할 말’을 할 수 있는 윤리적 지점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폴 리콤프의 형상화 이론을 사용한다. 리콤프는 줄거리 구성을 형상화 단계로, 줄거리 구성을 위한 전이해를 전형상화의 단계로, 그리고 형상화 단계를 매개로 새로운 자기 이해가 가능해지는 재형상화 단계를 구분한다. 이 글은 이런 단계에 맞춰 논의를 구성했다. 먼저 형상화 단계에서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고난 이해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전형상화 단계에서는 먼저 고난 이해에 사용되는 신정론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신정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기하는 도로테 쾰레의 고난 이해를 고찰해 보았다. 재형상화 단계에서는 세월호 사건의 참담함이 어떤 고통을 야기하는가 살펴 본 후, 고통의 당사자가 주체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천명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가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리콤프의 비판적 프로네시스 개념이 필요함을 보였다.

주제어: 폴 리콤프, 도로테 쾰레, 형상화, 욥, 비판적 프로네시스
